

▶ 명·청대의 인구 증가

양상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기술의 발달, 경지 면적의 증가, 농서의 보급 등에 힘입어 농업 생산력이 꾸준히 향상 • 옥수수, 감자, 고구마, 땅콩 등의 구황작물(救荒作物)의 재배로 식량 증대에 도움 • 면화, 뽕나무, 담배 등 수공업 원료나 상품 작물의 재배 증가 	
	교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30년대부터 1640년대까지 인구 감소 : 농민 반란과 정복 전쟁, 화북 지방에 발생한 전염병 	
	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늪지대와 숲, 들 등을 개발하여 농경지로 개간 • 제방과 수리 시설 개선 ↳ 명 대 초기보다 경지가 세 배 정도 증가 • 의료 기술의 향상으로 사망률 감소 • 지정은제의 전국 실시(1730) • 오랜 평화와 18세기의 온난한 기후 등의 영향 ↳ 폭발적인 인구 증가 	
부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수준이 떨어지고 환경 파괴 • 물가 상승 • 실업자, 유민이 전국에 걸쳐 증가 → 비밀 결사와 농민 반란이 빈번하게 발생 • 산간이나 변경 지대로 이동하는 인구가 늘어나 현지인과 이주민 사이의 갈등 심화 • 인구 밀도가 지나치게 높아진 동남 해안 지역에서의 계투(土客械鬪) 만연 •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의 증가 		<p style="text-align: center;">〈푸젠 토루(福建土楼)〉</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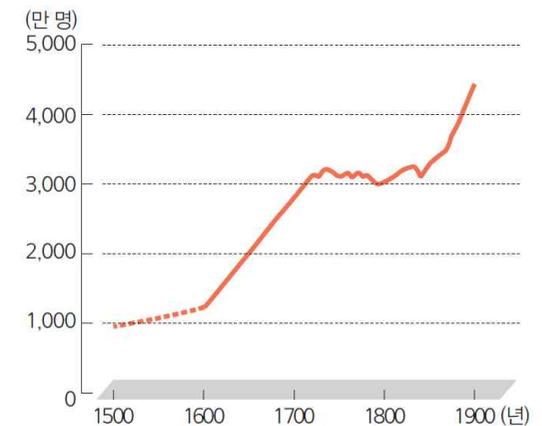
▶ 조선 후기의 인구 변화

- 정부의 개혁 정책
 - : 전세(田稅) 경감, 진전(陳田)의 개간, 양전(量田)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 ↳ 숙종(㉑, 재위 1674 ~ 1720) 때 경지 면적이 전쟁 전의 상태로 거의 회복
- 농업 기술의 발전과 농업 생산력 향상, 구황 작물의 재배
 - : **도내기법과 시비법**이 전국적으로 확산, 고구마 전래(조엄, 대마도, 1763) · 감자 전래(간도, 1824)
- 장시(場市)의 발달로 상품의 유통 활성화
 - : 면화, 담배, 채소 등 상품 작물 재배 증가
- 인구 변화
 - : 500만 명(건국 초기) ⇨ 1,000만 명(16세기 중반) ⇨ 인구 감소(17세기 전후) ⇨ 1,600만 명(19세기 중엽)
 - : 많은 사람이 삼북(황해도 · 평안도 · 함경도) 지방으로 유입 → 지역 개발 촉진
 - **1670 ~ 1671년(현종 11 ~ 12) 경신대기근**



▶ 에도 시대 일본의 인구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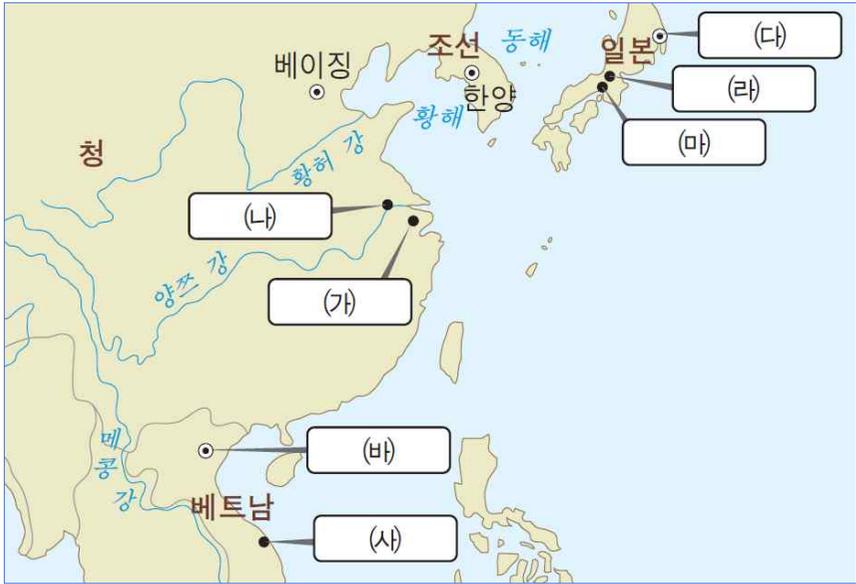
- 개간과 간척 등을 통해 새로운 농경지를 확보하려는 노력
 - : 산비탈에까지 밭과 계단식 논 조성
- 각지의 다이묘들도 세금 수입을 늘리기 위해 농민의 토지 개간을 적극적으로 장려
 - : 경지 면적이 두 배 이상 증가
- 농업 생산량의 증가
 - : 농기구 개량, 비료 사용 증가, 노동 집약적 농업 발전 → 단위 면적당 생산량 증가
- 면화, 담배 등 상품 작물 재배
- 인구 변화
 - : 약 1,500만 명(17세기 초) ⇨ 2,500만 명(18세기 초) ⇨ 인구 정체[다이묘의 수탈 증가, 교호 대기근 (1732), **텐메이 대기근**(기후 변동과 화산 폭발, **1782 ~ 1788**), 18세기]
 - 오사카 쌀 폭동(1788)



명·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 베이징 : 정치·군사의 중심지, 인구 100만 명, 최대 소비 도시, 강남에서 매년 400만 석 이상의 쌀이 대운하를 통해 운송 • 쑤저우 : 직물업 중심지, 최대 수공업 도시이자 상업 도시로 발전, 『성세자생도(盛世滋生圖, = 고소변화도)』(자생 → 인구가 늘어난다.) • 양저우 : 전매 상품인 소금 판매를 도맡아 큰 부를 축적한 상인들의 근거지 • 상업의 발달 : 면화와 면직물, 생사와 견직물, 목재, 콩 등이 전국적으로 유통, 차(茶)와 도자기(징더전)의 수출로 경제적 번영 • 대운하와 창장 강, 연안 항로가 경제의 중추적 역할 • 산시 상인, 휘저우 상인(‘휘저우 상인이 없으면 도시가 생기지 않는다.’) 등이 전국을 무대로 활동 → 회관(會館, 동향인 조합) 설립 • 중소 상공업 도시인 시진(市眞) 증가 : 거미줄처럼 연결된 수로를 통해 포도송이와 같은 유통망을 형성하며 강남 전체를 도시화
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 한양의 도시화 촉진 : 정치·행정·군사의 중심이자 상업 도시, 인구의 유입 증가, 수상 교통의 중심지인 성(城) 밖의 마포 등 한강 변에 인구 집중(성저십리) • 15세기 후반 장시(場市) 출현 ⇨ 16세기 장시의 전국 확산 ⇨ 17세기 이후에는 포구(浦口) 시장과 도시 시장 등장 ↳ 18세기 전국에 1,000여 곳의 장시 성행, 상품 거래와 정보 교환 등을 통해 상업 발전 주도 • 대동법의 시행(1608 ~)으로 공인(貢人)이 등장하여 상업 발달 촉진 • 한양의 경강상인, 개성의 송상, 동래의 내상, 의주의 만상 등 사상의 활약 : 경강상인은 한강을 근거로 서해와 남해까지 진출하여 미곡, 소금, 목재, 어물 등을 거래 : 송상, 내상, 만상 등은 대외 무역을 통해 큰 부를 축적
에도 막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농분리와 무사의 지배, 엄격한 신분 제도의 원칙 확립 : 각 번(藩)의 거점인 조카마치에 지배층인 사무라이가 거주하면서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 • 막부가 다이묘를 통제하기 위해 시행한 산킨코타이 제도(1635 ~)의 영향으로, 전국적인 도로망이 정비되고 여관업과 상업이 발달 • 조카마치 발전 : 18세기에는 전체의 약 10%에 달하는 주민이 도시 거주 : 막부 직할령인 에도, 오사카(천하의 부엌), 교토 등은 인구 수십만의 대도시로 발전 → 삼도(三都) : 나고야, 나가사키, 히로시마 등에도 수만 명의 인구가 거주 • 조년의 성장 : 초기의 호상(豪商, 독점 어용상인)을 대신하여 출현한 신흥 상인들은 나카마라는 동업인 조합을 결성하여 영업권의 독점 모색 : 막부와 다이묘로부터 영업의 독점권을 인정받은 나카마는 가부나카마로 공인(1745)

Check!

도시 발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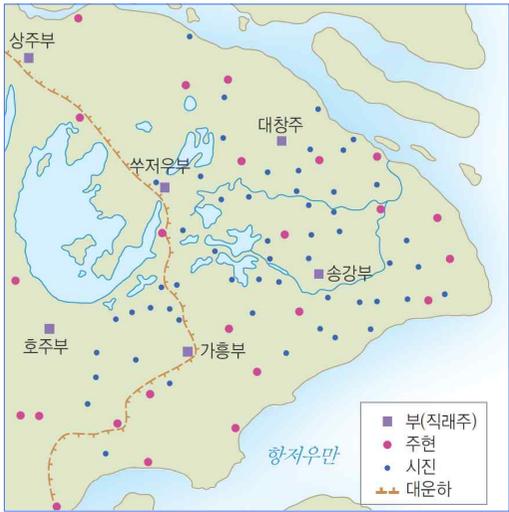


- (가) - 양저우(_____ 상인의 근거지)
- (나) - 쑤저우(『_____ (고소번화도)』)
- (다) - 에도(→ 도쿄, 1868)
- (라) - 교토(일본의 수도, 794 ~ 1868)
- (마) - 오사카(천하의 부역)
- (바) - 탕롱(하노이)
- (사) - 호이안(에스파냐, 포르투갈 상인의 진출)



Check!

강남 시진의 발달



시명감 증만!!

① 한양 인구 구성의 다양화(『천재 교과서』, p.114)

한양 주민 중에서 관직에 있는 자는 봉록(俸祿)을 받아 살며, 서리는 자질구레한 늬(늬으로 받은 쌀)으로 살고, 군인들은 군포(軍布)를 받아 살고, 영세 소상인들은 조그만 이익에 의지해 살고, 수공업자는 힘들게 제조하여 생계를 유지한다. 그러나 아침에 모였다가 저녁에 흩어지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농사도 짓지 않고, 옷감을 짜지도 않고 먹고사는 무리가 무려 수십만이나 된다. 공인, 시전 상인은 한양 주민 중에서 가장 생활이 안정된 자들이다.

- 『비변사등록』

② 일본의 도시 성장(『천재 · 비상 교과서』, p.115 · 119)

긴 다리 일곱 개를 지나서 비로소 오사카에 당도하니, 곧 모든 배가 정박하는 곳이었다. …… 길 양쪽의 긴 건물 중 층층의 집이 아닌 것이 없었으니, 이것은 온갖 물건을 파는 점포였다. …… 에도 길옆에 있는 회랑은 모두 상점이었다. …… 여러 사람의 눈이 뻑뻑하여 한 치의 빈틈도 없고, 옷자락에는 꽃이 넘치고 주렴 장막은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이 오사카와 교토보다 세 배는 더하였다.

- 신유한(1681 ~ 1752), 『해유록(海遊錄)』

③ 도시의 성장(『비상 교과서』, p.112)

▣ 명

명 말의 사조제(謝肇淛)는 “북경의 창고는 양가의 규수보다 많고, 걸개(거지)는 상인보다 많다.” 고 했고, “경사(수도 부근)에는 걸개가 많아서 아마 만 명은 넘을 것” 이라고 했다.

- 오금성 외, 『명 · 청 시대 사회경제사』(2013)

▣ 조선

공주는 …… 금강을 따라 흘러온 소규모 미곡 운반선이 이곳에서 큰 배로 옮겨 신기 때문에, 품삯이 비싸고 일거리도 많으므로 빈민들은 그것을 의지하여 살아간다. …… 사방의 장사꾼들이 모여든다.

- 이익, 『성호사설』

▣ 일본

(18세기) 에도에는 교토, 오사카에서 올라온 상품을 운송하기 위한 노동력이 필요하게 되어 일용직 고용층이 등장하였다. …… 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 하층민이 형성되었다.

- 아사오 나오히로 외, 『새로 쓴 일본사』(2007)

개념 Check

- ① 청대 인구 밀도가 지나치게 높아진 동남 해안 지역에서는 ()가 만연하였고,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도 크게 늘어났다.
- ② 조선 후기 경지 면적이 늘고 ()와 시비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등 농업 기술이 발전하면서 농업 생산력이 향상되었다.
- ③ () 대기근은 1782년부터 1788년에 걸쳐 일어난 대기근으로, 기후 변동과 화산 폭발 등 자연재해가 겹치면서 일어났다.
- ④ 명·청 시대 상업의 발전으로 대운하와 창장 강, 연안 항로가 경제의 대동맥이 되었으며, () 상인과 신안(휘저우) 상인 등이 전국에 걸쳐 활약하였다.
- ⑤ 직물업의 중심지인 강남의 ()는 최대의 수공업 도시이자 상업 도시로 발전하였고, 양저우는 전매 상품인 () 판매를 독점해 부를 축적한 상인들의 근거지가 되었다.
- ⑥ 17세기 조선에서는 장시보다 규모가 큰 () 시장과 도시 시장이 등장하였다.
- ⑦ 조선 후기 대표적인 상인으로 한양의 경강상인, 개성의 (), 동래의 내상, 의주의 () 등을 들 수 있다.
- ⑧ 에도 막부 시대 각 번의 거점인 ()에 지배층인 사무라이가 거주하면서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 ⑨ 다이묘를 통제하기 위하여 에도 막부가 시행한 () 제도의 영향으로 전국적인 도로망이 정비되고 여관업과 상업이 발달하였다.
- ⑩ 에도 막부 초기 호상을 대신하여 출현한 신흥 상인들은 영업상의 각종 권리(가부)를 지키기 위한 ()를 결성하였다.

▶ 다음 글에 나타난 시기의 동아시아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우리나라에는 외국과의 무역을 통해서 부유해진 상인들이 있다. 이들은 남쪽으로는 일본, 북쪽으로는 중국의 연경과 통하여, 몇 년 동안 천하의 물자를 실어다 팔아서 간혹 수백만 금의 재물을 모으기도 하였다. 이런 자는 한양에 많이 있고, 그 다음은 개성, 평양, 안주, 의주 등에 있으니, 이들 중에 의주의 만상은 책문 후시를 통해 큰 부를 축적하였다.

- ① 한국 - 3포를 개항하여 일본과 교역하였다.
- ② 중국 - 교초(交鈔)가 발행되어 널리 유통되었다.
- ③ 중국 - 공행(公行)을 통해 유럽 상인과 교역하였다.
- ④ 일본 - 송(宋)으로부터 동전을 대량 수입하였다.
- ⑤ 일본 - 귀족의 사유지인 장원(莊園)이 출현하였다.

▶ 다음을 통해 알 수 있는 시기의 동아시아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이 그림은 쑤저우의 번창한 모습을 그린 『성세자생도(고소번화도)』의 일부로 운하를 오가며 쌀, 비단, 담배 등을 매매하던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이 시기에 쑤저우를 비롯한 강남 지역에는 시진(市眞)이 크게 늘어났고, 산시 산인과 휘저우 상인들은 회관(會館)을 건립하고 전국적으로 상권을 확대하였다.

- ① 중국 - 균전제가 실시되었다.
- ② 중국 - 왕안석이 신법을 시행하였다.
- ③ 한국 - 청해진이 동아시아 무역의 거점이 되었다.
- ④ 일본 - 조카마치를 중심으로 상업이 발달하였다.
- ⑤ 일본 - 유력 농민층인 묘슈가 등장하여 장원을 관리하였다.

▶ 밑줄 친 '막부'의 대외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텐메이 연간, 대기근으로 인하여 미곡이 유통되지 않았다. 굶주린 자들이 미곡 상점을 습격하였다. 관리들이 엄격한 단속령을 내렸음에도 민중들은 무리를 지어 약탈을 계속하였다. 이러한 사건은 180여 년 전 막부가 개창된 이래 일찍이 없었던 일이다.

- ① 금의 공격을 받아 천도하였다.
- ② 공행을 통해 서양과 교역하였다.
- ③ 고려·몽골 연합군의 공격을 막아냈다.
- ④ 대외 무역을 허가하는 슈인장(朱印狀)을 발급하였다.
- ⑤ 무역항에 시박사를 설치하여 교역을 감독하였다.

▶명·청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 성장으로 도시 인구가 증가하고 소비문화 발전 → 도시 생활을 소재로 한 유흥과 오락을 즐기는 통속적인 취향이 반영 • 부유한 상인들이 문화의 주류로 등장 <p>: 청 대 고증학 후원, 출판문화와 지역별 음식 문화도 상인을 중심으로 발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쇄술의 발전으로 소설, 희곡, 시험용 도서 등 다양한 서적이 보급되면서 문화 수준 향상 • 농업이나 과학·의학·지리 등 실용 지식의 전파
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교 사원이나 도교 사원 등 종교 시설에서 벌어지는 행사나 축제 • 곡예·잡기·마술을 공연하는 대규모 공연장에서 여가 활동 • 종합 예술인 연극은 농촌을 순회하며 공연할 정도로 대중적 인기 <p>: 경극(京劇, 베이징), 각지의 특색을 반영한 지방 연극이 크게 발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유기』, 『삼국지연의』, 『수호전』, 『홍루몽』(1791년 출판) 등 대중 소설이 서민 사이에서 유행 • 도시 생활이나 민간 풍속을 묘사한 그림, 정월에 집안에 붙여 두는 연화(年畵) 등이 인기

▶조선 후기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당을 통한 교육 보급 • 사회·경제적 변화와 신분 구조의 변동, 실학 등의 영향으로 서민층의 자각에 바탕을 둔 문화 발달
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길동전』, 『춘향전』 등 한글로 쓰인 대중 소설 유행 • 『춘향가』, 『흥부가』, 『심청가』 등 판소리 발달 • 탈춤, 산대놀이 → 춤과 노래, 사설로 양반의 위선적인 모습을 비판하고 사회의 부정과 비리를 풍자하여 서민들 사이에서 인기 • 중인이거나 부녀자, 기생, 상인 등이 즐겨 부른 사설시조의 발달 • 미술에서는 서민의 일상생활과 의식을 묘사한 풍속화, 민화(문자도·호작도) 등이 성행 <p>: 풍속화가로는 서민들의 일상생활이나 생업의 장면을 묘사한 김홍도, 도시민과 부녀자의 모습을 화폭에 담은 신윤복 등이 유명</p>

▶에도 막부의 조닌 문화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생활이 자유로웠던 조닌이 도시의 중산층으로 등장하여 특유의 문화 발전 ↳ 여가를 활용하여 문학과 연극, 그림 등의 예술 향유 → 점차 다른 사회 계층에까지 확산 읽기, 쓰기, 셈법 등을 가르치는 데라코야(寺子屋) 확산(1690년대)
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학에서는 남녀의 애정이 주요 소재로 이용, 주로 상인이 주인공으로 등장, ex) 『일본영대장』(이하라 사이카쿠) 분라쿠(전통적인 인형극), 가부키(노래와 춤·재주를 결합한 대중 연극) 유행 : 가부키 전용 극장이 생기고 나중에는 지방의 마을에서도 공연 우키요에(게이샤나 배우, 선정적인 풍속·풍경 등을 묘사한 채색 목판화, 가쓰시카 호쿠사이) 발달(1681) → 유럽 인상파 화가에 영향 꽃꽂이, 정원 장식, 다도 등 일본 고유의 예술도 발전



〈경극〉



〈탈춤〉



〈풍속화〉



〈분라쿠〉



〈가부키〉



〈우키요에〉

▶ 명 · 청대의 학문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학인 성리학(주자학)과 공론화된 양명학에 반발하여 농학, 지리학, 역법 등의 연구를 통해 경세치용을 추구하는 학문 경향 등장 : 『본초강목』(이시진, 의학, 1596), 『천공개물』(송응성, 산업 기술, 1637), 『농정전서』(서광계, 농학, 1639), 『기하학원본』 번역(서광계)
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증학(考證學) : 명말 청초 황종희(1610 ~ 1695), 고염무(1613 ~ 1673) 등이 선구적 역할 → 문헌에 근거한 실증적인 사실 규명 중시 : 청(淸)의 사상 탄압(문자의 옥)과 한인 지식층 회유를 위한 대규모 편찬 사업 과정에서 발달 ↳ 『고금도서집성』(옹정제, 1725), 『사고전서』[경(經, 유교 경전)·사(史, 역사)·자(子, 사상)·집(集, 문학), 건륭제, 1773 ~ 1782(1781)] • 공양학(公羊學) :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 연구, 강유웨이(1858 ~ 1927) · 량치차오(1873 ~ 1929) : 진보 사관, 현실을 비판하고 개혁을 추구하는 근거 제공 → 변법자강 운동(= 무술변법, 1898)의 이론적 토대 • 서학 → 역(歷)을 만드는 흠천감(欽天監)의 장관에 선교사 임명

지문 확인

새로운 학문의 발전 ❶

① ㉠ _____, ㉡ _____ (『천재 · 금성 교과서』, p.120)

역사적 사건과 흔적들은 칭송할 것도 담고 있고 비난할 것도 담고 있다. (그러하니) 역사를 읽는 사람들도 ㉠**역지로 문법(이론적 틀)을 세우거나 멋대로 더하거나 떨어져 찬양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 다만, 그 사건과 흔적의 사실 여부를 상고함에 있어서 연도를 날줄로 삼고 사건을 씨줄로 삼아 분류하여 배치하거나 모아서 차례를 정하고, 기록의 같고 다름 및 보고 들은 것의 어긋남과 합치됨을 하나하나 조목별로 분석하여 의심을 없게 한다. …… 일반적으로 학문의 길은 공허(한 사변)에서 구하는 것이 사실에서 추구하는 것만 못하니, …… ㉡**역사를 서술하는 사람이 사실을 기록하고 역사를 읽는 사람이 상고하고 따지는 목적은 모두 거기서 그저 진실을 확인하려는 것이다.**

- 왕명성(1720 ~ 1797), 『십칠사상각』

② **청의 고증학**(『천재 교과서』, p.123)

나는 어려서부터 사서(四書)의 주석을 읽고 그 내용을 믿었으며 …… 자라면서 그것들을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나는 이미 육경과 공자·맹자의 말을 깊이 읽고 이것들을 사서의 주석에 있는 말과 비교해, 주석이 말하는 심(心), 이(理), 성(性), 도(道)의 뜻이 육경 및 공자·맹자의 말과는 크게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 단옥재(1735 ~ 1815), 『경운루집』

▶ 조선 후기, 에도 막부의 학문

조선 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학이 발달하고 전폐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예송 논쟁, 1659 · 1674) 발생 ↳ 서인 송시열(1607 ~ 1689) 주도, 주자학(성리학)의 교조화되고 형식화 • 17세기에는 정제두(1649 ~ 1736)를 비롯한 소론 학자들이 본격적으로 양명학을 연구하기 시작 : 주자학의 교조화 비판, 실천 강조,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함. • 연행사를 통해 서학(西學, 광의 · 협의)이 전해져 천문학과 역법, 기계 제작 등에 영향 → 양반과 중인층 일부가 천주교 신봉 • 실학(實學) 등장 : 사회 · 경제적 변동에 따른 사회 모순의 해결책 모색 : 토지 개혁 등을 통해 농촌 사회를 안정(중농)시키거나, 청의 선진 문물을 수용하고 상공업의 진흥에 역점을 둘 것(중상)을 주장 : 이익(1681 ~ 1763) · 정약용(1762 ~ 1836), 박지원[『열하일기』(1780), 1737 ~ 1805] · 박제가(1750 ~ 1805) • 실학의 영향으로 조선의 역사 · 지리 · 언어 분야 등을 연구하는 국학 발달, ex) 『발해고』 · 『택리지』 · 『대동여지도』
에도 막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자학의 관학 채택 : 무사 계급의 주종 관계 합리화 → 중국, 조선과 달리 사회를 지배하는 윤리로 정착하지는 못함. • 양명학은 점차 불합리한 사회 현실과 제도를 개혁하자는 실천적 성격 표방 → 막부 타도를 주장하는 무사들의 공감 : 구마자와 반잔(1619 ~ 1691), 막부의 세습 비판 • 고학파(古學派, 17세기) : 이토 진사이(주자 비판, 1627 ~ 1705), 오규 소라이(중국 고대 성인의 도를 밝히고 육경을 강조, 1666 ~ 1728) 등 : 주자학을 비판하면서 공자 · 맹자 시대의 유학으로 복귀할 것을 주장 • 국학파(國學派, 18세기 후반) : 모토오리 노리나가(1730 ~ 1801) : 일본의 언어 · 문학 · 신학 등 고전 연구 주장(고유의 정신으로 돌아가자!) → 일왕에 대한 충성심 강조(『대일본사』, 1657 ~ 1906) : 『고사기』 연구와 『고사기전』 저술(1798), 일본 우월주의와 존왕양이 운동에 영향 • 난학(蘭學, 랑가쿠)의 발달[데키주쿠(난학 교습소, 1838 ~)] : 네덜란드 상인에게 개방한 나가사키를 통해 서양의 의학 · 지리학 · 천문학 · 언어학 등이 들어와 새로운 지식 축적, 난학 교습소 설치 : 마에노 료타쿠(1723 ~ 1803) · 스키타 겐파쿠(1733 ~ 1817), 『가이타이신쇼(해체신서)』 집필(1774) → 경험적 · 실증적 학문 방법론 발전

① 군주 제도 비판(『미래엔 교과서』, p.119)

옛날에는 천하 사람이 주인이고 군주는 객이었다. 군주가 일생 동안 경영한 것은 천하를 위한 것이었다. 지금은 군주가 주인이고 천하가 객이 되었다. 무릇 천하가 안녕을 얻지 못하는 것은 군주 때문이다. …… 만약 군주가 없다면 사람들이 각자의 이로움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 황중희(1610 ~ 1695), 『명이대방록(明夷待訪錄)』

② 에도 막부의 고학(『비상 교과서』, p.118)

유학의 흐름이 …… 이상한 행동을 제일 중요한 일로 생각하게 되었다. 성인(聖人)이란 천자(天子)이며, 천자는 천하 국가를 다스리는 일을 자신의 직분으로 한다. 따라서 성인의 도란 바로 천하 국가를 다스리는 도라는 본래의 뜻을 어느 틈엔가 잊어버렸다.

- 오규 소라이(1666 ~ 1728), 『태평책(太平策)』

③ 에도 막부의 국학(『금성 교과서』, p.120)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일본의 태양신)는 우주 사이에서 견줄 바 없는 존재로서, 그리스교의 하나님이나 유교의 천명(天命)도 이에 미치지 못한다. 아마테라스가 태어난 일본은 만국의 중심이 되는 나라이고, 그 후손인 천황의 대군주로서의 지위는 불변하다.

- 모토오리 노리나가(1730 ~ 1801), 『고사기전(古事記傳)』

④ 정약용의 군주론(『미래엔 교과서』, p.119)

백성이 살면서 한 사람이 이웃과 다투어 해결을 보지 못하자 공정한 말을 잘하는 한 노인을 찾아가서 해결을 보았다. 사방의 이웃들이 다 감복하여 그 노인을 추대하여 이정(里正)으로 삼았다. …… 이상과 같은 사정과 순서를 밟아서 …… 여러 고을의 우두머리들이 한 사람을 추대하여 지방 장관을 정했고, 또 이들이 한 사람을 추대하여 황왕(皇王)이라 하였으니 황왕의 근본은 이정에서 시작된 것이다.

-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⑤ 조선의 중상학파 실학(『비상 교과서』, p.117)

재물은 우물과도 같아 퍼서 쓸수록 가득 채워지는 것이고, 버려두면 말라버린다. 비단을 입지 않아서 나라 안에 비단 짜는 사람이 없으면 길쌈질이 쇠퇴하고, 그릇이 비뚤어지든 어떻든 개의치 않으면 나라에 공장(工場)과 도야(질그릇 굽는 곳)와 대장간(大鑪間)이 없어지고, 기예도 없어지는 것이다.

- 박제가(1750 ~ 1805), 『북학의(北學議)』

• 명·청 대

인구 증가

- 토지 개간 → 청, 쓰촨 지방과 창장강 상류(쌀)
- 생산력 발전, 사망률 감소
- 신작물의 유입(옥수수, 감자, 고구마)
- 명말청초 약 1억 4천만 명에서 18세기 말 3억
- 부작용 : 1인당 경지면적 축소
- 실업자, 유민 증가로 농민반란
- 인구 이동과 계투(械鬪), 환경 파괴, 물가 상승

도시 발달

- 전국적 유통, 창장강과 대운하, 대상인(산시 - 휘저우 상인)
- 베이징(영락제, 1421), *영락제 → 대운하 정비
- 쑤저우(견직, <성세자생도>), 양저우(소금 전매 상인의 근거지)
- 시진(상공업 도시) 증가

서민 문화

- 출판(인쇄술 발달) : 실용 지식 서적(과학, 의학 등)
- : 서유기·삼국지연의·수호지, **홍루몽**
- 공연 문화 : 곡예, 잡기, 마술 공연
- : 희곡 농촌까지 순회 공연 → **경극(베이징)**
- 행사 : 불교 사원·도교 사원 등 종교 행사, 명절 축제

• 조선

인구 증가

- 15 ~ 16C말 증가, 17C 중반 이후 ~ 19C초 증가
- (예외 : 임진·병자 전쟁, 17C 전후 200만 명 감소)
- 경신대기근(1671 ~ 1672)으로 100만 명 사망
- 17C 후반 이후 북부 개발 : **삼북(황해·평안·함경도)**

도시 발달

- 16C 이후 **장시** 발달 → 18C 전국적(1,000여 곳 : 보부상)
- **포구와 도시 시장** 번성
- 한양 : 수도, 대동법 확산, 화폐 유통 등으로 발전
- 서강, 마포 → 18C 이후 30만 명 인구 증가
- 강경·원산 등 포구 도시 성장, **개성(송상)과 의주(만상)**
- 화성(정조 대 계획 도시로 성장, 1796)

조선 후기 서민 문화(부농, 상공업자)

- 서당 교육 확대
- **한글 소설**(장화홍련전, 콩쥐팥쥐전)
- **판소리**(춘향가, 흥부가, 심청가 등)
- **풍속화**(김홍도, 신윤복 등), **민화**
- **탈춤** 공연(상업 도시, ex)봉산 탈춤

• 일본 에도 막부

인구 증가

- 경지면적 확대 · 토지 조사(검지), 생산량 증대
- 17C초 ~ 18C초 2,500만 명
- 18C 중·후반 이후 인구 정체
- 다이묘(영주) 수탈 증가
- 자연 재해 : **덴메이 대기근(1782 ~ 1788)**

도시 발달

- 조카마치 : 번 거점, 무사 + 조닌(상공업자)
- **산킨고타이** : 다이묘 → 에도 쇼군 알현, 1635
- : **도로망, 상업 발달**
- 상업 도시 : **오사카와 교토**(막부 직할령), 나고야·나가사키·사카이
- 상인 : 다이묘 · 무사 상대 환전 및 대부 등 금융업, 동업 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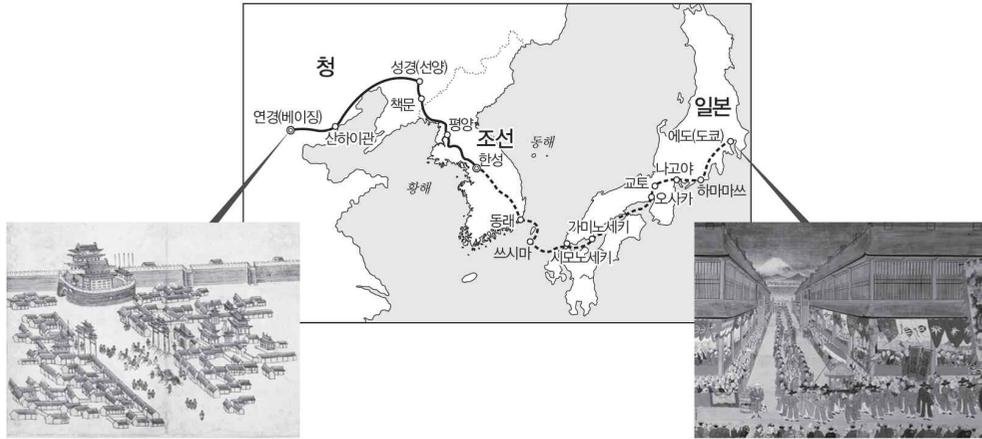
서민 문화(조닌 문화)

- 통속적 문학(주인공 상인)
- **분라쿠**(인형극), **가부키**(대중 연극)
- **우키요에**(채색 목판화, 1681)
- 테라코야(서당), 데키주쿠(1838)

개념 Check

- ① 청대 ()에서는 경극 공연이 유행하였다.
- ② ()는 에도 막부 시대에 유행한 풍속화로, 주로 채색 판화의 형태로 제작되었다.
- ③ 조선 후기 서민 교육 기관으로 ()이 많이 만들어졌다.
- ④ 청대에는 실증적 방법으로 경전이나 금석문을 연구하는 ()이 유행하였다.
- ⑤ 에도 시대 나가사키를 통해 들어온 서양 학문을 바탕으로 ()이 발달하였다.

▶ 다음 외교 사절이 활동하던 시기 동아시아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연경에 도착한 외교 사절

▲ 에도에 들어가는 외교 사절

- ① 한국 - 왜관에서 내상이 일본 상인과 교역하였다.
- ② 한국 -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가 편찬되었다.
- ③ 중국 - 정월에 집안에 붙여 두는 연화(年畵)가 유행하였다.
- ④ 중국 - 회관을 거점으로 산시 상인이 상행위를 주도하였다.
- ⑤ 일본 - 막부 직할령이 대도시로 성장하였다.

▶ 밑줄 친 '이 시기'의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림은 소설 『홍루몽(紅樓夢)』의 한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이 소설은 상류층의 애정 관계를 즐거리로 하면서도, 일상생활에 대한 섬세한 묘사와 깊이 있는 사회 비평을 담고 있다. 『홍루몽』이 지어진 이 시기에는 출판문화의 발달로 많은 대중적인 소설이 출간되었다.

- ① 효를 강조한 『부모은중경』이 등장하였다.
- ② 단군을 서술한 『제왕운기』가 집필되었다.
- ③ 성리학설을 집대성한 『성리대전』이 완성되었다.
- ④ 문헌의 엄격한 실증을 중시한 고증학이 발달하였다.
- ⑤ 신도와 불교를 융합한 신불습합 사상이 처음 출현하였다.

▶ 밑줄 친 ‘이 막부’ 시기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화로 보는 동아시아사



▲ 이하라 사이카쿠의 『일본영대장』



▲ 가쓰시카 호쿠사이의 작품

이 막부에서는 기존 지배층 중심의 문화에서 벗어난 새로운 문화의 흐름이 나타났다. 당시 문학에서는 이하라 사이카쿠가 쓴 『일본영대장』처럼 상인들의 삶과 풍속 등을 묘사한 소설이 늘어났다. 미술에서는 가쓰시카 호쿠사이의 작품처럼 자연 풍경이나 생활 모습 등을 표현한 판화가 유행하였다.

- ① 한국 - 판소리나 탈춤 등의 공연이 성행하였다.
- ② 중국 - 불경 등을 보관하기 위해 대안탑이 만들어졌다.
- ③ 중국 - 대규모 편찬 사업 등으로 고증학이 발달하였다.
- ④ 일본 - 가부키, 분라쿠 등의 대중 공연이 유행하였다.
- ⑤ 일본 - 읽기와 셈법 등을 가르치는 데라코야가 확산되었다.

Check!

실사구시의 학문 경향

선생은 크게는 국도를 건설하고 향읍을 구획하는 것에서부터, 작게는 금석문·고고학·의기·잡복 등에 이르기까지 정확하게 연구하지 않은 것이 없었고, 사실에 근거하여 탐구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규모가 방대하고 종합한 이론이 치밀하여 모두 경전을 보좌할 만한 것이니, 선생의 도를 드러내 보인 것들이다.